

부부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정폭력

빈곤가구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과 아내폭력을 중심으로

김재엽*

이서원**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에서 가족이 가지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부부의 상호작용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갤럽(1996)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도시 부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0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부부간 대화부족의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화의 내용도 애정생활과 여가생활 등 부부관계에 관련된 측면보다는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 부부 대화의 양적인 빈곤과 함께 질적인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 상호작용의 대표적 지표로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부부 의사소통은 대부분 독선적, 권위지향 등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강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원효종, 1985; 송성자, 1985; 이정순, 1991; 박성연, 1991; 유점숙, 1994).

부부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부부가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나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과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이나 이혼하는 부부들은 대화방식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다(최규련, 1995; 김영희, 1999; Moffitt et al., 1986). 의사소통으로 인한 부부관계의 어려움은 부부갈등의 증가 및 심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심한 경우 폭력이나 이혼 등 가족해체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의사소통으로 인한 부부문제 중 가정폭력은 부부갈등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추세에 있다. 1989년 갤럽에서 전국 1,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 발생률은 23.2%였으나, 1997년 김재엽이 전국 1,52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31.4%로 8%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이후인 1999년 전국 1,54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가정폭력 발생률이 34.1%(김재엽, 1999)로 나타났다. 최근의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부부 3쌍당 1쌍 꼴로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사회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 증가추세는 검찰의 공식적 통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1998년 7월 가정폭력처벌 특별법 시행 이후 검찰이 전국법원에 송치한 가정폭력 사건은 1998년 620건, 1999년 3,877건으로 증가하여 2000년 1월부터 7월까지 4,12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이 증가하면서 과거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만 여겨졌던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라는 데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 및 여성 위기전화 1366의 신설,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소 및 민간기관의 치료 등의 활발한 사회적 개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1366'의 경우 1998년 총 42,706건의 상담 중 남편의 구타 등에 따른 가정폭력이 12,02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또한 2000년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서울지부의 총 21,500건의 상담 중에서도 가정폭력이 26.8%인 5,765건으로 역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은 다양하고 다차원적 원인을 가진 현상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본질적으로 부부가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부부 사이의 역기능적인 현상이다. 가정폭력의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함께 작용하고 서로 긴밀히 영향을 주고받게 되면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가정폭력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들이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 요인과 특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의 연구들은 부부의 폭력적 관계의 부부 상호작용적 요인들의 차이점을

제시해주는 연구들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Lloyd & Emery, 1994).

최근의 연구경향은 가정폭력은 부부 사이에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서로 접촉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대인관계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과거 선행연구들은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특성만으로 가정폭력을 다루어 왔다. 이러한 관점은 폭력행위가 넓은 범주로 볼 때 인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Cahn, 1996). 상호작용이란 관계형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하고, 유지 또는 단절시키는 의사소통적 행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부 상호작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부부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성에게 있어서 가장 일차적이며 가까운 체계인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은 다른 원인을 촉발시켜 폭력을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발생요인이다. 결혼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들간에 발생되는 폭력 역시 체계의 산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부 의사소통은 가정폭력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가정폭력을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연구들(김갑숙, 1991; 이현태, 1992; 손연주, 1997)은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가정폭력의 발생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김정옥(2000)은 남성의 의사소통 유형이 산만형과 비난형일수록 아내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들은 의사소통과 가정폭력의 단선적인 관계만을 부분적으로 다루었을 뿐 부부 의사소통과 가정폭력의 관계를 깊이 있게 고찰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소통이 가정폭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부부 의사소통과 가정폭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란 부부의 상호작용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의사소통과 가정폭력의 연구들에서는 아내 혹은 남편이라는 배우자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이나 의사소통과 가정폭력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는 커다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부부의 상호작용을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부부 쌍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규명하려는 입장을 택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부부를 동시에 하나의 분석 단위로 하는 본 연구는 명확하게 한국사회 부부의 의사소통을 통해 부부의 상호작용 유형을 규명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남성은 여성보다 낮은 폭력률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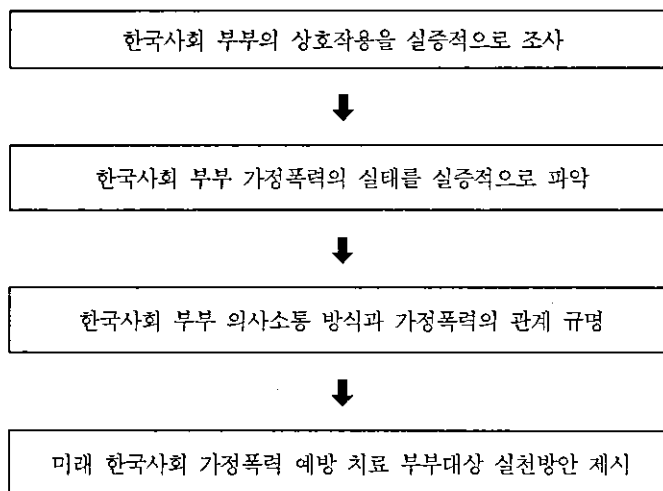
같은 부부를 대상으로 질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남성이 의도적으로 폭력을 부인하거나, 폭력을 여자보다 정확히 관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부를 쌍으로 조사하는 방법은 가정폭력률에 있어서도 가해자의 축소응답 경향이라는 문제점을 제거함으로써 명확하게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발생률을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부부 쌍을 분석단위로 하는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부부의 상호작용이 가정폭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신뢰성 있고 정확하게 규명해 내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사회 부부의 의사소통의 방식을 규명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부대상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시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부부 상호작용과 가정폭력의 관계를 부부 쌍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부부 상호작용과 가정폭력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가정폭력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부부상호작용과 가정폭력에 있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를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빈곤가구를 표적집단으로 하여 연구조사를 수행하여 효율적인 사회정책 마련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부를 같이 조사한다.



2.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정의

폭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힘(force)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을 폭력(violence)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폭력 중 그 대상이 여성인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한다. 폭력이 1차 집단인 가정 내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할 때 '가정폭력'이라 한다.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 유형과는 다르게 고정된 대상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사되며,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교육과 훈계의 도구 혹은 갈등해결의 한 방법으로 합법화되어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다(김재엽, 1996).

가정폭력은 폭력행위의 대상에 따라 부부폭력과 자녀폭력, 형제간의 폭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부부폭력은 부부 사이에서 행해지는 폭력행위로서 그 주체에 따라 아내폭력, 남편폭력으로 구분된다. 이 중 아내폭력은 남편에 의해 아내에게 가해지는 폭력행위를 의미하며 여성이 가정폭력 희생자의 90~95%를 차지한다(Dobash, Wilson, & Daly, 1992)는 연구결과로 미루어 가정폭력의 여러 유형 중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을 그 대상으로 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가운데 남편에 의해 아내에게 가해지는 폭력행위인 '아내 폭력'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2) 가정폭력의 실태

(1) 한국사회 가정폭력 실태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폭력이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이며 현재까지 일부 학자 및 연구기관 등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다음 <표 1>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국내 가정폭력 실태조사

조사주체	조사연도	조사대상자	폭력발생률
이영숙	1985	전주시·서울시 519쌍 부부	42.0%
한국갤럽	1989	전국 1,356명	23.2%
김정옥	1990	대구시내 225명	48.4%
김광일	1990	전국 1,316명	30.9%
형사정책연구원	1992	서울시 1,200명	28.4%
김재엽	1997	전국 1,523명	31.4%
김재엽	1999	전국 1,540명	34.1%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연구는 그 결과가 23.2%에서 48.4%에 이르기까지 폭력발생률이 매우 상이하다. 이처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사대상의 선정기준이나 크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즉, 조사표본을 하나의 특정지역에 국한시키거나, 전국조사라고 하더라도 구타를 당한 극히 일부의 피해자 사례(예: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 상담소)만을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이영숙과 김정옥 연구의 경우 조사대상 지역이 서울, 전북, 대구 등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김광일 연구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였다. 19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역시 전국규모의 실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실태조사로 인정받고 있는 연구는 1989년 한국갤럽의 조사와 1990년대 후반 김재엽에 의해 수행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이다.

1989년 한국갤럽의 전국 1,356명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한국 부부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23.2%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연구는 가정폭력 발생률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측정으로 1980년대 후반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평균 네 쌍의 부부 중 한 쌍은 1년에 한 번 이상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실태를 알 수 있는 연구는 김재엽에 의해 1997년과 1999년에 두 차례 수행되었다. 김재엽의 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한 체계적 표본추출 과정을 거친 표본조사로서 전화조사(1997)와 직접대면 면접조사(1999) 방법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을

사용하여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보다 다양한 특성들을 포착해 내었다. 1997년 전국 조사에서는 31.4%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나타났으며, 1999년 전국조사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34.1%였다. 김재엽의 연구는 정확한 확률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한 전국조사이므로 1990년대 후반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평균 32.75%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세 쌍의 부부 중 한 쌍은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0년 전인 1989년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10% 정도 증가한 것이다.

또한 1990년대 후반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볼 때, 가정폭력 발생률은 한국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전국조사에서는 31.4%였던 가정폭력 발생률이 1999년 전국조사에서 34.1%로 3%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1997년 말에 발생한 IMF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과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던 1999년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의 폭력 발생률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 가정의 부부폭력률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미국에서 1985년에 실시된 전미 가정폭력 조사결과와 1993년 재미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미한국인 가정폭력의 조사결과 및 1994년 아시아국가 중 홍콩에서 실시된 가정폭력조사의 결과를 한국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들 각 실태조사는 공통적으로 CTS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것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 가정에서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다른 사회의 발생률보다 훨씬 높다. 즉, 한국 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서구사회인 미국의 1985년 부부폭력률 16.1%보다 2배 이상 높으며, 같은 아시아권인 홍콩의 14.1%보다 3배에 가깝게, 인접국가인 일본의 17.0%보다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2년 미국 내에 거주하는 재미한국인에 대한 18.8%의 부부폭력 발생률보다도 1.5배 이상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부폭력 발생률이 다른 사회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과, 사회문제로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재미한국인과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한국인의 기질적 특성에 의해 가정폭력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유전적 원인론보다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 가정폭력 발생률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체계 이론에서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높은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표 2〉 국가간 부부폭력 발생률

폭력 유형	부 부 폭 력 발 생 률					
	미 국 ¹⁾	재미한국인 ²⁾	홍 콩 ³⁾	한 국 ⁴⁾	일 본 ⁵⁾	한 국 ⁶⁾
	1985 (n=3520)	1993 (n=260)	1994 (n=382)	1997 (n=1523)	1999 (n=2800)	1999 (n=1540)
부부 폭력	16.1	18.8	14.2	31.4	17.0	34.1

- 1) 전미 가정폭력실태조사는 1985년 Straus와 Gelles에 의해 전미 3,520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2) 재미한국인 가정폭력실태조사는 1993년 김재엽에 의해 뉴욕과 시카고 한인 260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3) 홍콩 가정폭력실태조사는 1994년 So-kum Tang에 의해 홍콩 382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4)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는 1997년 김재엽에 의해 전국 1,523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5) 일본 가정폭력실태조사는 1999년 소지 요코 외에 의해 동경도 2,800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6)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는 1999년 김재엽에 의해 전국 1,540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 빈곤가구의 가정폭력 실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빈곤가구의 부부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을 빈곤가구로 설정한 것은 빈곤가구에서 가정폭력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빈곤, 저소득, 실직 등은 가족구성원의 불만이나 좌절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따라서 갈등발생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데, 가족구성원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적응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1975년도에 수행된 전미 가정폭력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정폭력 중 경미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의 경우 가족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폭력발생률이 감소하였다. 전체 가족수입이 감소할수록 가정폭력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Brien, 1971; Straus 외, 1979). 즉, 노동자 계층이면서 동시에 빈곤계층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Straus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 의하면(1980) 빈곤경계선이거나 빈곤경계선 이하에 위치한 가정들의 경우, 상류 부유층에 위치한 가정에 비해 가정폭력 발생률이 500%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Hutchison, Hirschel & Pesackis, 1994; Klaus & Rand, 1984). 태국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유형 중 신체적 아내구타 영역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지위(SES: Socioeconomic Status)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ffman, Demo & Edwards, 1994).

3) 부부 의사소통의 정의

(1) 의사소통의 정의

사람은 자신이 깨어 있는 시간의 거의 3/4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낸다 (Samovar et al, 1969). 우리가 산다는 것은 바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 가면서 끊임없이 남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는 상호작용을 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은 인간관계를 생성하게 하고, 지속시켜 주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에 대해 Galvin과 Brommel(1982)은 의사소통은 상징적·상호 거래적 과정 혹은 의미를 창조하고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여기서 상징적이라 함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심벌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뜻하며, 심벌은 말이나 글 등의 언어적인 표현과 혹은 안면표현, 제스처, 몸의 움직임, 자세, 음성, 외양 등과 같은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의사소통은 크게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상호거래적 과정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때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고 인간이 끊임없이 의미와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사소통을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Miller와 Steinberg(1979)는 의사소통을 의미의 공유를 위해 사람들 사이에 사용하는 상징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과정으로 정의함으로써 특별히 의사소통의 목적이 의미의 공유라는 점을 통해 의사소통의 기능적인 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의미는 각 개인마다 같지 않다. 왜냐하면 각기 선택하는 영역이 다르고 분류체계도 다르며 이로 인해 각기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은 자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연관된 의미를 자기 마음 속에 그려넣으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미가 자신의 의미와 유사하기를 바라면서 상대에게 자극이나 실마리를 주어 상대가 그것에 의미를 할당하게 함으로써 의미를 공유하려는 시도이다. 요약하자면 의사소통은 의미의 공유를 목적으로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상징체계로 구성된 상호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부부 의사소통의 정의

대인간의 의사소통(*interpersonal communication*)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가 교환된다. 의사소통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2인 관계는 사회집단의 최소 단위이지만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최대 변수이기도 하다. 즉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2인 관계에 기초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 있는 2인 관계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이다. 부

부는 인간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이 존재한 이래 생존과 적응을 위해 짝짓기를 해왔고, 원시시대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혼인양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일처제가 보편적으로, 또 가장 지속적으로 존재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넓은 의미의 의사소통에 포함되는 한 영역으로 부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부가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어느 한 쪽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각자의 사고와 태도에 따라 상이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거나 상대를 이해할 가능성도 높다. 사회심리학자인 James(1980)는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관점과 타인이 자기를 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간 의사소통을 James의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의 의사소통의 내용과 의사소통 유형도 남편과 부인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특히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부간 의사소통은 본인이 지각하는 경우에 비하여 배우자에 의해 지각되는 경우 좀더 폐쇄적이고 노출이 적은 유형으로 지각하게 된다(원효중, 1984; Hawkins et al., 1980). 이러한 차이는 남편과 부인이 서로 자신의 배우자가 좀더 개방적이기를 기대하므로, 자신이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여도 배우자는 이를 좀더 폐쇄적인 것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부부관계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관계이며, 부부간 의사소통도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을 파악하려면 남편과 부인을 한 쌍으로 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사소통을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메시지를 교류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은 부부가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하여 평가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부부 의사소통의 방식

결혼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부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특정한 대화유형, 즉 의사소통방식을 만들어간다. 부부간의 의사소통방식은 계속 반복되어 온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좀처럼 바뀌기 어렵다. 부부간의 의사소통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부 의사소통 방식은 그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였는가에 따라 또한 그 유형이 달라지게 된다. 현재까지 부부 의사소통 방식을

분류한 국내와 국외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① 국내 선행연구

부부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국내 연구는 국외의 부부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준거의 틀로 삼고 있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또한 국외 선행연구들이 한국사회와 문화가 다른 서구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우리의 문화적 상황에 맞추어 재구조화시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 연구는 다양한 기준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부의사소통 유형을 구분하였지만, 이를 크게 분류해 보면 사회심리학적 요인, 언어화와 감정표출의 정도, 언어표현에 따른 행동요인, 상호작용요인을 기준으로 부부의사소통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가. 사회심리학적 요인 기준 부부 의사소통방식

사회심리적 요인을 기준으로 부부 의사소통을 분류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송성자(198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송성자는 부부간의 역기능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초점을 두고 정상가족과 문제가족을 비교하기 위하여 남편과 부인의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질문에 부인이 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부 의사소통방식을 조사하였다. 이때 분류기준은 한국 가족구조, 한국인의 성격, 가치관 등 사회심리학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분류된 부부 의사소통 방식을 보면, 먼저 감정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체면을 중요시하는 '권위지향형'이 있고, 자신이 불안정하여 상황에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이 산만하게 말하는 '불성실지향형'이 있으며, 주변사람을 지배하려 하고 명령적이고 지시하는 것처럼 말하는 '지배지향형' 및 자신감이 적고 지나치게 주변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면서 무조건 참고 견디는 '희생지향형', 비관적 태도를 지니고 있어 불평과 불만이 많고 이유를 잘 따지는 '소심지향형'이 있다.

또한 송성자(1985)와 같이 부부의 역기능적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한 최영희·김은심(1988)은 신체적 이상증세를 나타내는 주부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신체의 병리학적 현상이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에서 초래되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었고, 분석결과 문제부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권위지향형', '소심형', '불성실형', '희생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부부 의사소통 분류방식은 우리 사회의 사회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한 분류라는 점에서 우리 문화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나. 부부간의 언어를 통한 행동적 측면 기준 부부 의사소통방식

다음으로 부부간의 언어를 통한 행동적 측면을 기준으로 부부 의사소통방식을 연구한 것이 선행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기준을 사용한 대표적 연구는 이창숙의 연구(1988)이다. 이창숙은 관찰가능한 태도적 측면을 포함시키면서 언어를 통한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여 Hawkins(1977, 1980), Satir(1972), 송성자(1985) 등의 이론과 분류를 근거로 한국 도시의 남편과 부인들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남편은 권위형, 친숙형, 성실형, 분석형, 타인지향형으로, 부인은 권위형, 성실형, 타인지향형, 희생형, 분석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가운데 ‘권위지향형’은 관례적, 냉소적, 파괴적, 공격적 행위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격은 열등감, 무력감, 개인의 무의미 때문이라는 것이다. ‘친숙형’은 정서적으로 풍부한 상태를 보이며 자신의 내적 사실과 경험을 명백하게 개방적으로 언어를 통해 표출하는 의사소통방식이다. 친숙형은 의사소통시 어떠한 사실에 대해 정서적으로 강하게 몰입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성실형’은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집을 중요시하는 가치관, 그리고 가족구조 내에서 서열의식 등 전통적 가족구조에 대한 방어전략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유형으로, 의사소통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거짓말을 하고 무책임한 말을 하는 특징을 보인다. ‘분석형’은 지나칠 정도로 합리적인 말을 하고, 태도는 조용하고 냉정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나는 상처 입기 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유형이다. ‘타인지향형’은 타인의 의견을 항상 조심하고 그것에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신경을 쓰며 특히 무슨 주장을 내세울 것인가를 신중히 생각하는 유형이다. ‘희생형’은 일이 잘못되면 자기책임으로 생각하거나 자기를 숨기려 하거나, 상대방의 눈치를 보거나, 무조건 동의하거나,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거나 하는 행동양식을 말한다. 이 유형은 가문을 중요시하며 남존여비사상, 서열의식, 집안의 화목 등을 위한 개인의 희생, 특히 여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권위자에 대한 의존과 희생은 약자, 특히 한국여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부부간 상호작용 기준 부부 의사소통방식

이정순(1991)은 의사소통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의사소통의 요인 및 남편과 부인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류하고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의 관계를 파악했는데 남편 집단에서는 ‘독선형’, ‘순종형’, ‘권위지향형’, ‘무관심형’, ‘상호존중형’으로, 부인 집단에서는 위의 유형 중 권위지향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점숙(1994)은 부부 의사소통 유

형으로 배우자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힘과 주장을 과시하여 우위성을 지키려는 권위성향형,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이성적 태도를 지닌 상호존중형, 배우자의 의사소통에 관심이 없고 신경을 쓰지 않는 무관심형, 엉뚱한 말을 하거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난처할 때 농담을 해버리는 불성실형, 자신이 옳아도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게 동의해 주는 타인지향형으로 구분하였다.

② 국외 선행연구

부부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 및 기존 연구들은 부부 의사소통을 특성화시키고 또 이를 발전시켜 유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특성을 분류하는 데는 학자마다 그 이론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크게 부부간 의사소통의 유형을 언어화와 감정적인 면, 가족규칙 및 관계, 지각의 유사성과 이해, 양극적인 행동차원, 기능적·역기능적 의사소통, 상호거래 의사소통, 부부간의 대화 스타일로 나누어 유형화하였다.

가. 언어화와 감정적인 면 기준 부부 의사소통방식

Satir(1972)는 의사소통 유형을 언어적인 면의 말과 비언어적인 면의 얼굴표정, 몸의 위치, 근육의 상태, 숨쉬는 속도, 음정 등을 기초로 하여 나타난 세 가지 차원, 즉 언어로 표현하는 말, 몸의 자세 그리고 내면적 감정을 토대로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으로 나누었다. Hawkins, Ray & Weisberg(1977, 1980)는 어떤 사실에 대한 언어와 감정의 표현 정도에 따라서 자신이나 상대방이 외적으로 경험하는 사실과 감정에 관해 언어적으로 거의 드러내지 않는 폐쇄적 형태, 자신이나 타인의 내외적인 경험과 사실을 인정하고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개방적 형태로 나누었다. 이상과 같은 두 개의 차원에 따라 네 개의 의사소통 유형, 즉 폐쇄적이며 높은 감정노출의 의사소통 유형인 회피형, 폐쇄적이고 높은 감정노출의 의사소통 유형인 억제형, 개방적이고 낮은 감정노출의 의사소통 유형인 분석형, 개방적이며 높은 감정노출의 의사소통 유형인 친숙형으로 분류하였다.

나. 가족규칙 및 관계 기준 부부 의사소통방식

Vincent, Friedman, Nugent & Messerly(1979)는 의사소통을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최대의 요소라고 강조하

였다. 그리하여 가족구성원간에 언어적·암묵적으로 규정되어 가족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가족규칙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을 가족규칙을 지속시키는 완고형(*rigid type*), 가족규칙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융통형(*flexible type*), 사회제도나 타인을 자신보다 우선시하여 열등감과 공포감을 느끼는 공포형(*fearful type*), 낙관적이고 우호적인 개방형(*open type*)으로 나누었다.

다. 지각의 유사성과 이해 기준 부부 의사소통방식

Edward(1980)는 의사소통함으로써 생기는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부부간에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해가 증진되어 가정평형상태에 도움을 줄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부부간 의사소통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그는 지각의 유사성과 이해를 기준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의사소통 태도를 평가하는 두 가지 종류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배우자의 의사소통 태도를 유사하게 지각하고 선호하는 조화상태(*consonal condition*), 배우자를 유사하게 받아들이나 다른 것을 원하는 갈등상태(*conflict condition*), 태도에 있어서 배우자를 다르게 지각하고 다른 것을 원하는 부조화 상태(*dissonance condition*), 배우자를 다르게 받아들이나 현재의 것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비갈등 상태(*non-conflict condition*)로 의사소통을 나누었다.

라. 기능적·역기능적 의사소통 기준 부부 의사소통방식

Norton(1978)은 기능적/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하여, 기능적 의사소통으로는 긴장이완형, 개방형, 표현형, 감정이입형, 친밀형을,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지배형, 논쟁형을 분류하였다. Haley(1980)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① 자기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동 ② 혼돈되고 불명확한 언행 ③ 분명한 이유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행위 ④ 공격적인 행위 ⑤ 예외에 어긋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언행 ⑥ 권위에 비복종적인 언행 ⑦ 다투는 식의 언행을 들었다.

마. 상호거래 분석방법 기준 부부 의사소통방식

Berne(1964)은 상호거래 분석방법을 유행시켰는데, 상호거래란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유형을 뜻하며 3가지 유형, 즉 보충적, 교우적, 은폐적 유형으로 구분했다.

보충적 상호거래 유형은 자아상태가 서로 고정되어 있는 한 아무런 장애가 없이 계속될 수 있으나, 자아상태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교우적 상호거래 유형에서는 의사소통이 주로 한정되기 쉽고,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은폐적 상호거

래 유형은 일종의 게임적 행동 메시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다.

바. 부부간의 대화스타일 기준 부부 의사소통방식

부부대화법을 개발한 Miller와 그의 동료들(1994)은 부부간의 대화를 스타일에 따라 4가지 유형, 즉 일상적 대화유형, 싸우는 대화유형, 탐색적 대화유형, 개방적 대화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일상적 대화유형은 의례적인 말, 정보를 전달하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 유형이고, 싸우는 대화유형은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공격하거나 혹은 보복적 의도를 가지고 대화하는 유형이다. 탐색적 대화유형은 정보와 생각을 알기 위해 탐색적으로 말하고 듣는 유형이고, 개방적 대화유형은 솔직히 말하기와 경청을 포함하는 유형이다.

(4) 한국사회 부부 의사소통의 특징

국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부부 의사소통의 특징은 대부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유형을 연구한 송성자(1985)의 경우, 부부 의사소통의 유형으로 권위지향형, 불성실지향형, 회생지향형, 지배지향형이 나타났다. 이정순(1991)의 경우, 남편집단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인 독선형, 순종형, 권위지향형, 무관심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인 상호존중형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부인집단의 경우 역시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인 독선형, 무관심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상호존중형, 순종형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정순, 박성연(1991)의 연구에서는 남편은 부정적 의사소통 유형인 독선형, 순종형, 권위지향형, 무관심형이 대부분의 결과를 차지했고, 상호존중형의 유형은 가장 적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의 경우 역시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인 독선형, 무관심형의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상호존중형, 순종형이 나타났다.

원효중(1985)과 유점숙(1994)의 결과를 제외하고는 남편과 부인의 의사소통 유형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이다. 유점숙(1994)의 경우도 상호존중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나와 이러한 경향을 지지해 주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한국인의 의사소통 특성과 한국의 가족구조의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오세철, 이부영, 유태림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한국인의 의사소통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의사소통시 다른 사람의 의견과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태도와 생각을 예상하고 반응한다. 한국인은 성장과정에서 개성이 존중되는 분위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시 자신의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먼저 고려하여 자신의 반응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인은 자기 소신대로 행동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한국인은 직관적으로 상대방의 태도와 생각을 알아차리는 감각이 발달하였다.

둘째, 의사소통시 비언어적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한국인은 자신이 상대방의 태도와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상대방도 자신의 태도와 생각을 알아차리고 반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명백하게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기보다 비언어적으로 자신의 상태나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셋째, 의사소통시 상대의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한국인은 이성적이기보다 감정적인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외부의 자극에 대해 이성적 판단보다 직관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의사소통시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구조에서는 어려서부터 가족내의 최고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가족구조에서 의사소통을 학습한 것은 성장 후에도 상대와 의사소통에서 권위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하거나 반대로 의존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한다. 따라서 수평적인 의사소통구조보다는 수직적이고 서열적인 의사소통구조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의사소통시 명확한 의사소통보다는 서로 상대의 태도와 의도를 예상하고 반응하는 면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불명확한 의사소통구조 하에서는 의사소통과정에서 서로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수평적인 구조가 아닌 수직적인 의사소통구조 하에서는 이러한 오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는 자신이 상대와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사소통의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 가족구조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가족은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함으로써 부자관계에 종속되던 부부관계가 가족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가족구조로 전환되었으나,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비해 속도가 느려 실제적으로 확대가족의 의식구조가 많이 잔재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송성자, 1985). 한국의 가족구조속에서의 부부간 의사소통은 서구와 달리 개인의 반응과 행위의 규칙은 가족과 친척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사소통의 기능은 가족화합을 위해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논쟁을 피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침묵에 가치를 두어서(오세철, 1988) 계

층서열에 적합한 의사소통을 추구하게 된다.

(5) 의사소통과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대부분은 가족간 상호작용에서 적절하지 않은 역기능적 대처방법의 문제이다(Satir, 1978). 체계론적 상호작용모델(systematic interaction model)에 의하면 가정의 폭력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부부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그들의 행동유형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체계모델 관점에서 부부 상호작용으로 폭력의 원인 중의 하나를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본다. 기존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폭력은 하나의 표현방법이 된다. 즉,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부족과 왜곡은 폭력을 촉발하는 단서를 제공하며 그 결과 이성적인 대화와 설득보다는 단조롭고 직선적인 발언과 돌발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쉽고 이것이 폭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차원에서 Gillessims(1983)는 가정폭력은 부부 중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의 개인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부부체계 내에서 부부간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제시하고 있다. Yegidis(1992)는 가정폭력의 다양한 유형(패턴)들이 부부간 상호작용의 선상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Resenbaum과 O'Leary(1981)의 연구에서도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높은 부부간 불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국내 선행연구

가정폭력을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이현혜, 1992; 손연주, 1997)은 의사소통유형에 초점을 두었다. 김갑숙(1991)은 부부갈등과 부부폭력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부부갈등 가운데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경험할 경우 아내구타가 심하였다. 김정옥(2000)은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을 Satir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한 후 가정폭력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에서 남성의 의사소통유형이 산만형과 비난형일수록 아내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재엽(1999)이 전국 1,5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폭력이 있는 부부의 경우 의사소통에서 부정적인 방식을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보호관찰소 가해 남성 82명을 심층면접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가정폭력 가해 남편의 의사소통 유형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마음 속에 담아 두기보다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국외 선행연구

부부 의사소통과 부부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부부 의사소통이 가정폭력을 포함한 부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부부 일반관계와 관련하여 Bolte(1975)는 부부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의사소통이라고 하였고, Craddock(1980)는 부부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의 92% 이상이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에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Snyder(1979)에 의하면 부부가 서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능력이 부부의 만족(*marital satisfaction*)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부의사소통의 양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부부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부부간의 대화의 양이 많지 않으며, 부부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부부간의 대화를 많이 하고 어떤 문제든지 자유롭게 토론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Raush(1974) 등의 부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원만하지 못한 부부는 갈등이 있어도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부부 의사소통의 특징과 부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부 의사소통의 특징이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다. Thomas(1977)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의 가장 큰 특징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라고 강조하였다. 불행한 부부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무감각하기도 하다(Koren & Carton, 1980).

의사소통 기술은 전반적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의사소통기술이 부족한 부부는 쟁점에 대해 명백하고 성숙한 의사소통 형태를 통하여 토론하고 협상할 수 없기 때문에 폭력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Pizzey & Shapiro, 1982; Madances, 1981). Davis(1987)는 가정폭력 남성의 특성은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Star(1980)와 그의 동료들은 가해자 개인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폭력요인으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기술의 결핍을 지적했다.

최근 Cahn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으로서의 의사소통에 관한 일반적인 관점을 가정폭력을 설명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Cahn은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가정폭력을 설명하고 있다. Cahn에 의하면 의사소통은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첫째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적(*instrumental*) 목적, 둘째는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간의 특별한 관계형성을 창조하거나 지속하기 위한 관계형성(*relational*)의 목적, 셋째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한 정체성(*identity*) 확립의 목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목적과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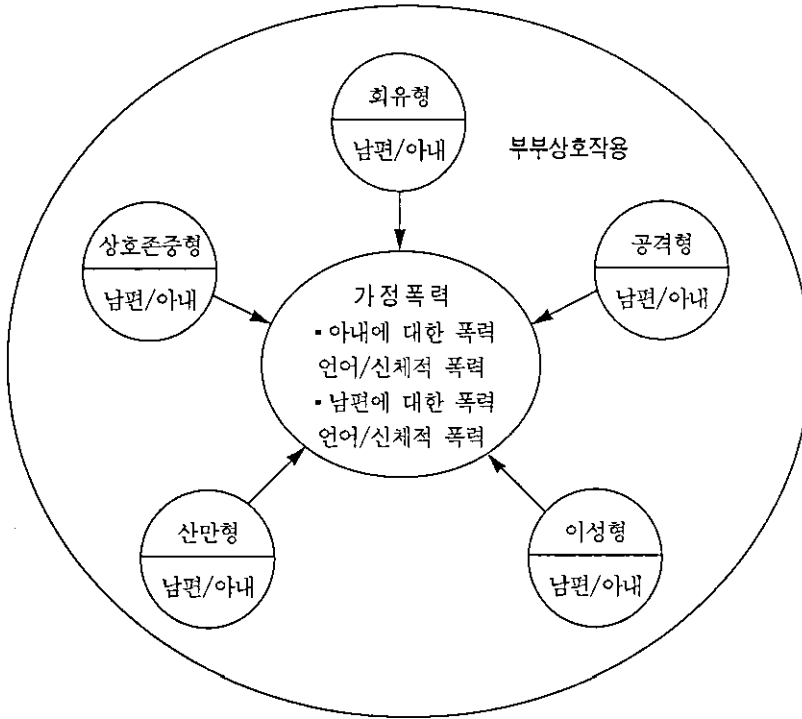
은 의사소통의 차원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은 가정폭력을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데 적용된다. 도구적 차원으로서의 가정폭력은 좌절-공격이론에 의하여 가정 내에서 목적달성에 실패하면 좌절이 증가되고 그 결과로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관계형성적 차원은 결혼관계에서의 애정, 정서적 관여, 질투, 대인관계적 신뢰, 성적 관계, 권력의 균형 등의 정도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폭력가정을 볼 때 관계형성의 이슈가 폭력의 초점이 될 것이고, 폭력행위자의 의도에 의해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인간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의미를 타인과 함께 나누고자 행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구성원이 속해 있는 사회의 특별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적절한 범위에서 규정될 것이다. 의사소통적 능력이란 처해 있는 지역사회 혹은 문화 내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상징을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으로 간주되는데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사회적 가치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며 가치 있는 목적을 성취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접근에서 보면 폭력행위는 의사소통의 부정적 측면이며 폭력행위자는 의사소통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부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부부 의사소통방식을 회유형, 공격형, 이성형, 산만형, 상호존중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부부쌍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림 1〉 연구모형



또한 가정폭력을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과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으로 구분하여 언어적 폭력 및 신체적 폭력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이후 부부 상호작용 가운데 발생하는 부부의사소통방식과 가정폭력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게 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빈곤가구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요인을 부부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표본선정에 있어 빈곤가구를 표본대상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 선행연구들에서 가정폭력의 정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 빈곤계층의 가구에서 보다 심하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도 가정폭력의 문제가 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둘째, 빈곤가구로 표본을 한정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하여 독립변인인 부부간 상호작용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조사대상자 선정 및 표본수 결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빈곤가구의 부부이다. 한국사회의 다양한 소득계층 중에서 본 연구가 빈곤가구에 주목하는 근거는 Wolfgang의 하위문화론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동시대의 사회적 삶의 양식을 이루고 있는 가치들의 군집 속에는 폭력적 행위에 적합한 환경으로 간주되는 가치, 신념, 규범의 문화적 차별성이 존재한다. 주(主)문화와 공존하는 이러한 폭력지향적인 하위문화는 특히 소수 인종집단이나 사회적 하위계층 내에 존재한다. 하위문화에 속한 구성원들은 궁극적으로 하위문화가 소유하는 행위규범, 가치와 신념체계에 순응하기 때문에 하위문화 속에서 폭력행위가 정상적으로 인식되는 경우 구성원들은 이를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소유하게 된다. 이러한 하위문화의 학습의 장이 되는 것은 가정과 지역사회이며, 따라서 가정폭력은 그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그 사회가 소유하는 하위문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흔히 하위문화에 속하는 계층을 빈곤계층으로 설명하는데, 이들은 사회 속에서 중상류층이 소유하는 권력이나 다양한 자원을 소유하지 못하고, 집단 혹은 사회경제적 압박을 분출시킬 수 있는 다른 통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olfgang의 하위문화론에 근거하여 가정폭력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빈곤가구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구의 정의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비 지급대상자로 한정한다. 빈곤가구란 경우에 따라 저소득층, 영세민 또는 빈민층으로 불린다. 빈곤가구는 취업구조, 주거 및 소비양식, 사회적 자원의 배분양식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그 독특한 성격이 규정된다. 따라서 빈곤가구의 성격규명은 이들 삶의 어느 특정한 측면이 아니라 생산, 분배, 소비의 총체적인 경제활동과 이들의 사회적 속성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시각을 견지할 때에만 비로소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박혜인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저소득과 불완전취업이라는 특징을 공유하며 도시의 빈곤지역에 밀집되어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시 저소득층 혹은 빈곤층이라고 개념 짓는다.

이러한 개념을 한국사회에 적용시켜 볼 때, 저소득이라는 측면은 소득 및 경제생활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현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비 지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때 최저 생계비는 월 32만 원이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거나 위의 조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급여가 필요하다고 보는 대상에게 수급권을 인정함으

로써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대상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과 불완전 취업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포괄하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비 지급대상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소득수준 및 고용상태에서의 열악함을 빈곤의 기준으로 보았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비 지급대상자를 빈곤가구로 한정함으로써 빈곤가구를 정의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를 남편이나 아내의 부부 일방에 한정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것은 기존의 연구는 남편이나 아내를 따로 분리한 부부 일방에 대한 연구여서 실제적 부부관계의 파악보다는 단면적 조사에 그쳤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부부 쌍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상호작용 유형에 대한 본인의 인식과 배우자의 인식 간에 나타나는 차이점과 남편과 아내 간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가정폭력 여부에 대한 보고에서 나타나는 남녀간 차이를 분석하여 일반적으로 최소화된 수치를 밝히는 것으로 나타난 한국 가정폭력의 정확한 실태추적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의 전체 표본수는 빈곤가구의 부부 100쌍이다. 이와 같이 전체 표본수를 부부 100쌍으로 결정한 것은 <표 3>에 나타난 공식에 의한 것이다. 본 연구는 부부 한 쌍에 대한 조사이므로 다음의 <표 3>에 나타난 표본의 크기 200은 부부 100쌍에 대한 조사로 만족된다.

<표 3> 전체 표본수 결정

$$n = (2z/w)^2 \times p(1-p)$$

n은 표본수, z는 신뢰수준의 z score, w는 Standard Error의 거리를 의미한다. p는 기존연구를 통한 가정폭력 발생률을 의미한다. 김재엽의 1997년과 1999년의 전국조사를 통한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평균 32.8% 정도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평균 32.8%임을 고려하여 $\pm 6.5\%$ 의 오차범위에서 95%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2 \times 1.96 / 0.13)^2 \times 0.328 \times 0.672 \approx 200$$

(2) 표본추출방법

본 연구의 표본추출방법은 빈곤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조사대상자인 빈곤가구에 대한 추적을 중심으로 하는 목적적 표본추출을 중심으로 하면서 최종 표본선정에서는 균등한 표본선정 가능성을 위해 단순무작위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인 목적적 표본추출의 과정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빈곤가구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빈곤가구의 비율이 높은 광역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도 가장 빈곤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조사 대상지역으로 결정하여 한국사회 빈곤가구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조사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광역지역은 서울특별시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 인구의 1/4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전체 빈곤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전국의 광역지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비 지급대상 가구의 전국적 집계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과거 공적 부조의 생활보호대상자의 분포에서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므로 서울특별시를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서울시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비 지급대상 가구는 82,118가구이다.

본 연구조사의 표본은 서울시의 대표적 빈곤가구 밀집지역인 노원구와 강서구에서 추출하였다. 노원구는 9,114가구가 거주하여 전체 서울시 빈곤가구의 11.1%가 거주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서구는 8,296가구가 거주하여 10.1%의 비율로 노원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전체 25개구 중에서 노원구와 강서구가 21.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원구와 강서구에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빈곤가구 부부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대표성 확보에 타당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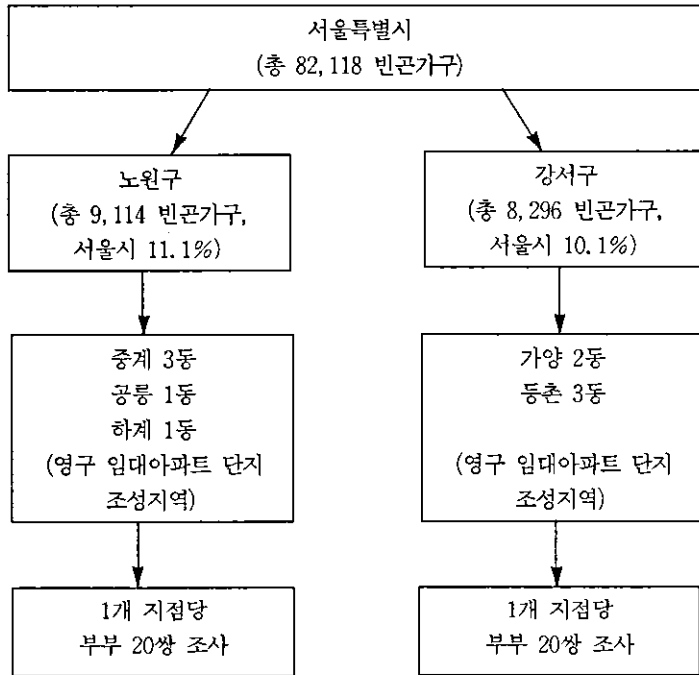
노원구와 강서구에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대상자가 밀집하여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원구의 중계 3동, 공릉 1동, 하계 1동의 3개 지점과 강서구의 가양 2동, 등촌 3동의 2개 지점을 선정하여 총 5개 지점에서 각각 20쌍의 부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들 5개 지점의 공통된 특징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지역 중에서도 빈곤지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특징이 강한 지역들이다.

2단계인 단순무작위 추출방법은 1단계에서 최종 조사지점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실제 연구의 조사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편견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실제 조사지역으로 선정된 지점에서의 조사대상자 결정은 해당지역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협조를 얻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가구의 연명부를 확보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가 빈곤가구의 남편과 아내를 한 쌍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연구이므로, 연명부 가운데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1차적으로 추출한다. 이후 이들 가구에 대한 단순무작

위 추출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연구대상 표본을 선정하도록 한다. 다음의 <그림 2>는 표본추출과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2> 표본추출과정



(3) 조사방법

선정된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원들이 직접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1:1 면접방법에 의한 조사취지 설명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선정된 조사대상 부부에 대한 응답률을 높이고 성실한 조사응답을 얻기 위해 조사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가구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속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한정한다. 먼저 해당지역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부부 20쌍에 대한 설문지와 무작위로 선정된 대상자 명단을 배부하여, 선정된 해당 대상 부부에 대한 방문면접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때, 부부간 조사내용에 있어서 솔직한 응답과 비밀유지를 위해 대면면접 상황에서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부부가 동시에 다른 공간에서 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4) 조사시기

먼저 2001년 7월에 조사지점에서의 사전조사를 통하여 조사방법 및 설문지 내용에 대한 검토작업을 갖는다. 이후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접 방문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는 2001년 8월과 9월, 두 달 동안에 실시한다.

(5)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측정도구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측정도구

조사영역	조사내용		측정도구	
사회인구 특성	학력, 직업, 수입, 종교			
부부의사소통 방식	남 편	역기능적 의사소통	회유형	Couple Communication Scale (Satir)
			공격형	
			이성형	
			산만형	
	기능적 의사소통		상호존중형	
	아 내	역기능적 의사소통	회유형	
			공격형	
			이성형	
산만형				
기능적 의사소통		상호존중형		
폭력경험 (유형, 빈도, 정도) 실태	언어적 폭력		Conflict Tactics Scale (C. T. S.) (Straus & Gelles)	
	신체적 폭력			

① 부부 의사소통방식

본 연구에서는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한국 부부 의사소통의 특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한국사회 부부 의사소통의 방식을 가족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가족치료가 Satir(1991)가 제시한 역기능적 부부의사소통 및 기능적 부부의사소통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Satir의 의사소통 모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기능적 의사소통보다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더욱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국내 부부의사소통 선행연구 결과에 본 모형이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국내 의사소통연구들이 Satir 모형을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여 우리 사회문화에 적절한 용어로 규정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atir의 부부간 대화유형 모형을 기준으로 하되, 우리 문화에

보다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부부 쌍을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의사소통방식을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부부 의사소통방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Satir 모형에서는 부부가 긴장시에 사용하는 대처방법과 대처형태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회유형, 타인의 결점을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비난형, 감정표현 없이 냉정하고 차분한 초이성형, 주의집중을 못하는 산만형, 진실된 자기표현과 감정표현을 하는 성숙된 형태인 일치형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우리 문화에 적절한 용어로 재구성하여 회유형, 공격형, 이성형, 산만형, 상호존중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들 각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가. 회유형 의사소통방식

이 유형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보다 보편적인 한국사회에서 부부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의사소통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의사소통방식에서는 의사소통시의 상황적 맥락과 다른 사람의 입장이 의사소통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상황과 상대는 존중하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표 5〉 회유형 의사소통 방식

말	정 서		행 동
모두가 내 잘못이다 네 입장이 중요하다	나는 힘이 없다		사 과 의 존 저 자세
내적 경험	심리적 영향	신체적 영향	특 징
나는 아무 가치도 없다	신경과민	소화장애 위장장애 편두통	자신 : 무시 상황 : 존중 상대 : 존중

나. 공격형 의사소통방식

이 유형은 회유형과 정반대 유형으로 힘이 있고 공격적이다. 상대와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잘못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고 심판적이며 명령적이고 지시적이다.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을 힘이 있고 강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남편의 많은 유

형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자신과 상황만을 존중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다.

〈표 6〉 공격형 의사소통 방식

말	정 서		행 동
내가 문제다 모든 게 너 때문이다	내가 여기서 지도자다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한다		심 판 명 령 공 격
내적 경험	심리적 영향	신체적 영향	특 징
나는 외롭다 나는 뛰어나다	편집증	근육긴장 고혈압 혈액순환 문제	자신 : 존중 상황 : 존중 상대 : 무시

다. 이성형 의사소통방식

이 유형은 의사소통에서 감정을 배제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잘잘못을 따지는 유형이다. 대인관계에서 경직되어 있으며 원칙론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자존심과 과도한 책임감으로 남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낀다. 이 유형의 특징은 상황만을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다.

〈표 7〉 이성형 의사소통 방식

말	정 서		행 동
앞뒤가 맞아야 한다 생각처럼 해야 한다	감정을 제거하여야 한다 냉정하고 침착해야 한다		조작적 행동 원칙적 행동 권위적 행동
내적 경험	심리적 영향	신체적 영향	특 징
어떤 감정도 표현 할 수 없다	강박증 긴장감	허리통증 심장질환	자신 : 무시 상황 : 존중 상대 : 무시

라. 산만형 의사소통방식

이 유형은 이성형과 상반된 유형으로 대화시 자신의 관심사에만 몰두하여 상대의 입장이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방해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대화시 관계없는 말이나 뜻이 통하지 않는 말을 하고 계속 움직이고 바쁘고 주제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이 유형은 자신과 상황, 상대방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8〉 산만형 의사소통 방식

말	정 서		행 동
나는 모르겠다 그대로 두어야 한다	혼동스럽다 계속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한다		과잉활동 불안정한 움직임 다른 사람 말 방해
내적 경험	심리적 영향	신체적 영향	특 징
누구도 나와 상관없다 나의 관심만 중요하다	혼동감 부적절감	위장장애 편두통	자신 : 무시 상황 : 무시 상대 : 무시

마. 상호존중형 의사소통방식

이 유형은 기능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유형이다. 자신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변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한다. 이 유형은 비판을 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의견, 생각, 행동, 상황을 고려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자신과 상황 및 상대를 모두 존중하는 것이다.

〈표 9〉 상호존중형 의사소통방식

말	정 서		행 동
너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너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중요하다 서로 이해해야 한다		유연한 행동 기능적 행동 창조적 행동
내적 경험	심리적 영향	신체적 영향	특 징
조 화 균형감 안정감	건강한 심리	건강한 신체	자신 : 존중 상황 : 존중 상대 : 존중

② 폭력경험실태

가정폭력의 발생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폭력경험 실태의 측정은 Straus(1971)의 CTS (Conflict Tactics Scale)를 사용한다. Straus(1971)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갈등해결방법으로 사용하는 행동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CTS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갈등관리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척도로는 유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척도는 가족의 폭력 또는 구타를 측정하는 많은 연구에 사용되어 왔으며 1975년 전미 가정폭력조사에서 사용된 이래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조사에서도 대부분 사용해 왔다.

CTS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범주화되어 있는데, 첫째는 합리적 논의, 둘째는 상대

방을 괴롭히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포괄하는 언어적 공격, 셋째는 물리적 공격을 사용하는 신체적 폭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성적 행동(reasoning)은 '조용히 대화를 나눈다' 등 3문항,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은 '욕을 하거나 위협한다' 등의 6문항 그리고 신체적 폭력행동(violence)은 '물건을 집어던졌다' 등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8문항을 6점 Likert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실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언어적 공격 3문항과 신체적 폭력(폭력행동)의 8문항을 사용하도록 한다. 11문항을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11문항의 구체적 내용은 <표 10>과 같다.

CTS의 첫 번째 차원인 합리적 논의영역은 본 연구에서 CTS를 사용하는 목적이 가정폭력에 대한 측정이고, 의사소통유형에 대한 측정도구가 설문구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언어적 공격의 6문항에서는 ①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욕을 했다 ② 고함을 쳤다 ③ 때리겠다고 혹은 물건을 집어던지겠다고 위협했다는 핵심 3문항으로 측정하여 언어폭력 수준을 측정한다.

또한 Straus와 Gelles가 신체적 폭력 항목으로 구성한 9문항에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8문항으로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폭력에 대한

<표 10> 가정폭력 측정도구

구 분	세 부 문 항
언어적 폭력	(1)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욕을 했다.
	(2) 고함을 쳤다.
	(3) 때리겠다고 혹은 물건을 집어던지겠다고 위협했다.
신체적 폭력	(1)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
	(2) 물건을 집어던졌다.
	(3) 세게 밀쳤다.
	(4)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5)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6)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7)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8) 칼(가위)이나 총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다.

문항을 다시 경미한 폭력과 심각한 폭력으로 나누어서 측정한다.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 문항을 제외한 7문항 중에서 경미한 폭력은 ① 상대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② 세계 밀쳤다 ③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는 항목이 포함되며 심각한 폭력은 ①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② 물건(책,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③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④ 칼(가위)이나 총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는 항목이 포함된다.

4.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조사대상자는 부부 101쌍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101쌍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항 목		남 성 (%)	여 성 (%)
연 령	40대 이하	5	13.9
	40대	33.7	41.6
	50대	23.8	15.8
	60대 이상	37.6	28.7
학 령	중졸 이하	75.2	83.2
	고졸 이상	24.8	16.8
직 업	직업 있음	68.3	29.7
	무 직	31.7	13.9
	전업주부	-	56.4
월 소 득 (n=75)	없 음	66.3	66.7
	40만 원 이하	8.9	18.7
	41~99만 원	16.8	14.7
	100만 원 이상	7.9	없음
종 교	기독교	44.6	48.0
	천주교	5.9	6.0
	불 교	15.8	15.0
	기 타	3.0	3.0
	무 교	30.7	28.0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월소득이 4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연령, 저학력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 68.3%가 직업이 있으며 직업의 유형은 생산직이나 소규모 자영업이 대부분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부 의사소통의 실제

(1) 대화내용

다음은 부부가 주로 나누는 대화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의 항목에 대해 중복응답하도록 하였다.

남편의 경우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문제는 자녀문제였으며, 돈, 건강, 음주 및 흡연, 집안일과 시댁 및 친정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돈 문제에 대해 가장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은 자녀, 건강, 음주 및 흡연, 집안 일의 순서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 각각 순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대화내용들은 비슷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12〉 남성응답자의 대화내용

순위	남 성			여 성		
	내용	빈도(%)	평균비중	내용	빈도(%)	평균비중
1	자녀문제	72(71.3)	39.3768	돈문제	80(79.2)	36.6216
2	돈문제	71(70.3)	35.7971	자녀문제	77(76.2)	43.7671
3	건강문제	66(65.3)	33.4426	건강문제	70(69.3)	34.8923
4	음주·흡연	28(27.7)	22.6923	음주·흡연	32(31.7)	25.2903
5	집안일	18(17.8)	23.4375	집안일	21(20.8)	18.2222
	시댁·친정	18(17.8)	19.0625			

(2) 부부대화시간

부부의 1일 평균 대화시간과 TV 시청시간을 제외한 대화시간은 아래 〈표 13〉, 〈표 14〉와 같다.

〈표 13〉 남성응답자의 부부대화시간

항 목	30분 이하	30분 초과~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대화시간	30(29.7)	19(18.8)	26(25.7)	26(25.7)
TV 시청시간을 제외한 대화시간	42(41.6)	19(18.8)	20(19.8)	20(19.8)

남편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0.4%가, 아내의 경우 78.8%가 TV 시청시간을 제외하고 1일 평균 1시간 이하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여성응답자의 부부대화시간

항 목	30분 이하	30분 초과~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대화시간	35(35.0)	27(27.0)	28(28.0)	10(10.0)
TV 시청시간을 제외한 대화시간	52(52.5)	26(26.3)	15(15.2)	6(6.1)

(3) 부부 의사소통

① 부부 의사소통유형

부부의 의사소통유형은 회유형, 공격형, 이성형, 산만형, 존중형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남편의 경우 공격형이 29.3%로 가장 많았으며, 존중형이 그 다음으로 많은 25.6%였다. 아내의 경우는 회유형이 43.3%로 가장 많았고, 존중형이 그 다음으로 많은 22.7%였다.

〈표 15〉 부부 의사소통유형

부부대화유형	남 편		아 내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회유형	16	19.5	42	43.3
공격형	24	29.3	16	16.5
이성형	10	12.2	12	12.4
산만형	11	13.4	5	5.2
존중형	21	25.6	22	22.7
합 계	82	100.0	97	100.0

② 부부간 의견일치 및 의견일치에 대한 만족도

평소에 부부가 나누는 대화내용을 12가지로 제시하였고, 각각의 내용에 대한 의견일치 정도 및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의견일치 정도에 있어서 자녀문제와 성생활문제, 돈문제, 남편의 직장문제, 건강 및 질병, 친구관계 및 사회생활, 주택문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각각이 인지한 의견일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의견일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자녀문제, 돈문제, 성생활, 가사분담, 아내 직장문제, 건강 및 질병, 친구관계 및 사회생활, 음주 및 흡연, 남편의 직장문제, 주택문제에서 남편과 아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음주 및 흡연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남편의 경우가 아내에 비해 높은 의견일치 정도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편이 아내에 비해 의견일치 정도와 만족도에서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16〉 부부간 의견일치 및 의견일치에 대한 만족도

항 목	응답자 성별	일치정도		Sig.	만족도		Sig.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한다	
돈문제	남	27(28.1)	69(71.9)	.010**	23(24.2)	72(75.8)	.001**
	여	46(46.0)	54(54.0)		45(46.9)	51(53.1)	
자녀문제	남	19(20.7)	73(79.3)	.000***	19(20.7)	73(79.3)	.000***
	여	43(46.7)	49(53.3)		44(47.8)	48(52.2)	
성생활	남	21(21.6)	76(78.4)	.000***	22(22.9)	74(77.1)	.028**
	여	48(48.5)	51(51.5)		36(37.5)	60(62.5)	
시댁 및 친정식구 를 대하는 태도	남	20(20.4)	78(79.6)	.081	21(21.6)	76(78.4)	.119
	여	31(31.3)	68(68.7)		30(31.6)	65(68.4)	
가사분담	남	19(20.2)	75(79.8)	.056	15(16.3)	77(83.7)	.004**
	여	32(32.3)	67(67.7)		33(34.7)	62(65.3)	
아내의 직장문제	남	20(21.7)	72(78.3)	.226	20(22.0)	71(78.0)	.039**
	여	28(29.5)	67(70.5)		26(28.0)	67(72.0)	
남편의 직장문제	남	17(18.7)	74(81.3)	.030**	19(21.1)	71(78.9)	.057*
	여	31(32.6)	64(67.4)		31(33.7)	61(66.3)	
건강 및 질병	남	19(19.0)	81(81.0)	.012**	19(19.2)	80(80.8)	.004**
	여	35(34.7)	66(65.3)		37(37.8)	61(62.2)	

<표 16> 계속

항 목	응답자 성별	일치정도		Sig.	만족도		Sig.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한다	
친구관계 및 사회생활	남	19(20.2)	75(79.8)	.017**	17(18.8)	76(81.7)	.004**
	여	35(35.7)	63(64.3)		35(36.8)	60(63.2)	
음주 및 흡연	남	44(44.0)	56(56.0)	.718	31(31.3)	68(68.7)	.017**
	여	47(46.5)	54(53.5)		47(48.0)	51(52.0)	
여가 및 취미활동	남	30(30.9)	67(69.1)	.478	29(30.2)	67(69.8)	.286
	여	35(35.7)	63(64.3)		36(37.5)	60(62.5)	
주택문제	남	10(10.3)	87(89.7)	.051*	10(10.4)	86(89.6)	.065*
	여	20(20.4)	78(79.6)		19(20.0)	76(80.0)	

*** p<.001, ** p<.05, * p<.1

③ 부부 의사소통 과정

<표 17> 부부 의사소통과정

문 항	남		여		Sig.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아내의 말투를 보고 말하려는 것을 잘 알아차린다	19(24.4)	59(75.6)	21(24.1)	66(75.9)	.558
2. 대개의 경우 아내는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을 잘 알아차린다	30(34.9)	56(65.1)	33(42.3)	45(57.7)	.207
3. 아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시작하기가 어색하다	15(16.9)	74(83.1)	28(34.1)	54(65.9)	.007**
4. 아내와 나는 이야기를 할 때 상대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서로 잘 맞춰준다	32(39.0)	50(61.0)	27(32.9)	55(67.1)	.258
5. 나는 아내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할 때 긴장되고 부자연스럽다	80(87.9)	11(12.1)	57(76.0)	18(24.0)	.036**
6. 아내가 내 의견을 물어볼 때 자신감을 느낀다	38(48.7)	40(51.3)	32(42.7)	43(57.3)	.278
7. 아내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이야기를 그만둔다	31(36.9)	53(63.1)	53(63.1)	31(36.9)	.001**
8. 나는 아내와 심하게 말다툼한 후에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어색하다	31(36.9)	53(63.1)	31(41.9)	43(58.1)	.316

〈표 17〉 계속

문항	남		여		Sig.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9. 아내와 그날 있었던 일 중에 즐거웠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30(36.1)	53(63.9)	41(50.6)	40(49.4)	.043**
10. 아내와 그날 있었던 일 중에 안 좋았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39(45.9)	46(54.1)	44(52.4)	40(47.6)	.245
11. 부부 사이에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불평·불만이 있는 일에 대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다	40(47.6)	44(52.4)	35(46.7)	40(53.3)	.516
12. 서로 이야기하기를 피하는 주제가 있다	21(25.9)	60(74.1)	22(29.7)	52(70.3)	.363
13.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서로 의논을 한다	19(22.1)	67(77.9)	13(16.0)	68(84.0)	.214
14. 내가 잘못된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한다	45(52.3)	41(47.7)	43(53.1)	38(46.9)	.523
15.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42(46.2)	49(53.8)	41(51.3)	39(48.8)	.304
16. 나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다	30(35.7)	54(64.3)	46(50.5)	45(49.5)	.034**
17. 결혼 생활동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에 대해 대체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한다	22(30.1)	51(69.9)	36(41.9)	50(58.1)	.086*

** $p < .05$, * $p < .1$

〈표 17〉은 부부간 의사소통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항 1, 2, 3은 의사소통의 초기 과정에 대한 질문이며, 4, 5, 6은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중기과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문항 7, 8은 의사소통 종료에 대한 질문에 해당된다. 그리고 9번부터 17번까지의 문항은 의사소통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느냐를 질문하고 있다.

남편의 경우 응답자의 83.1%는 아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대화를 시작하기 어색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아내는 65.9%만이 남편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색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배우자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할 때 긴장되고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이 남편에 비해 아내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그만두는 경우는 아내에 비해 남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배우자와 그날 있었던 일 중에 즐거웠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 역시 남편이 아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속마음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로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아내보다 남편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인원이 더 많았다.

3) 폭력실태

남성응답자에 의한 가정폭력 발생률을 보면 물건을 부수거나,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진 경우, 세계 밀치거나 뺨을 때린 경우 등 경미한 폭력을 아내에게 행사한 경우는 응답자의 22.0%였다. 이는 4쌍당 1쌍꼴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발이나 주먹을 사용한 경우, 물건으로 때린 경우, 사정없이 마구 때리거나 목을 조른 경우, 칼이나 총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등 심각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1%가 지난 1년 간 아내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8〉 남성응답자의 가정폭력유형별 발생률

항 목	없다	있다
경미한 폭력	64(78.0)	18(22.0)
심각한 폭력	77(93.9)	5(6.1)
전체 폭력	63(76.8)	19(23.2)

다음은 이를 보다 세부적인 신체적 폭력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폭력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었다.

〈표 19〉 남성응답자의 가정폭력유형별 발생률 2

항 목		폭력 없음	폭력 있음
경미한 폭력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75(91.5)	7(8.5)
	세계 밀쳤다	72(87.8)	10(12.2)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73(89.0)	9(11.0)
심각한 폭력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78(95.1)	4(4.9)
	물건으로 때렸다	82(100.0)	0(0.0)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80(97.6)	2(2.4)
	목을 졸랐다	81(98.8)	1(1.2)
	칼이나 총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81(98.8)	1(1.2)

4) 의사소통유형과 가정폭력

(1) 남편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정폭력실태

〈표 20〉 남편 의사소통 유형과 가정폭력실태

	전체폭력		경미한 폭력		심한 폭력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회유형	15 (93.8)	1 (6.3)	15 (93.8)	1 (6.3)	16 (100.0)	-
공격형	15 (62.5)	9 (37.5)	15 (62.5)	9 (37.5)	22 (91.7)	2 (8.3)
이성형	10 (100.0)	-	10 (100.0)	-	10 (100.0)	-
산만형	8 (72.7)	3 (27.3)	8 (72.7)	3 (27.3)	10 (90.9)	1 (9.1)
존중형	15 (71.4)	6 (28.6)	16 (78.0)	18 (22.0)	19 (90.5)	2 (9.5)
Sig.	.068		.645		.066	

(2) 남편의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대화

〈표 21〉 남성의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대화

유형 (N)	의견일치도	의견일치에 대한 만족도	의사소통 과정	대화시간	성역할태도
회유형 (16)	2.7795	2.8629	3.1287	1.9375	2.6205
공격형 (24)	2.7911	2.7608	3.0384	1.6667	2.3690
이성형 (10)	2.8647	3.0103	3.3699	2.3000	2.1571
산만형 (11)	2.5297	2.6049	2.5294	1.8182	2.3636
존중형 (21)	2.8211	2.9722	3.6583	2.5714	2.2041
Sig.	.627	.152	.000***	.071	.149

*** p < .001

(3) 남편의 의사소통 유형과 아내의 정신건강 및 가족건강

〈표 22〉 남편의 의사소통 유형과 아내의 정신건강 및 가족건강

남편의 의사소통 유형	여성의 정신건강		F	Sig.	여성의 가족건강성		F	Sig.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회유형	2.8244	.8845	.285	.887	3.0365	.6243	2.877	.028**
공격형	2.7540	.6956			3.1076	.6042		
이성형	2.5810	.5162			3.8033	.6498		
산만형	2.5864	.8941			3.1591	.4353		
존중형	2.6667	.6667			3.3124	.6985		

**p < .05

(4)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과 남편의 정신건강 및 가족건강

〈표 23〉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과 남편의 정신건강 및 가족건강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	남편의 정신건강		F	Sig.	남편의 가족건강성		F	Sig.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회유형	2.6067	.5679	.368	.831	3.2536	.5773	3.121	.019**
공격형	2.6290	.5529			3.6177	.6184		
이성형	2.7857	.6137			3.2847	.5522		
산만형	2.8857	.9634			2.6000	.9600		
존중형	2.6310	.7338			3.3674	.4816		

**p < .05